

#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성당

2006년 3월

-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115번(수난기약 다다르니)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요한 10, 22-39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십자가의 길 기도 후에 미사가 봉헌됩니다.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사순시기 동안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 '사랑의 절제 헌금'  
'사순절 신앙 생활표' 실천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117번(지극한 근심에)

MEMO

##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Mane Nobiscum Domine)

### 제1장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대회년의 발자취를 따라서

####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6. 저는 10년 전 「제삼천년기」(Tertio Millennio Adveniente, 1994년 11월 10일)에서 교회에 2000년 대회년 준비 계획을 제안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게는 이 역사적 사건이 그 자체로 커다란 은총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저는 단순한 연대기적 사건은 아무리 매력적이라 해도 그 자체로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삼천년기는 과거와 연장선상에 있고 흔히 최악의 모습을 한 비극적인 사건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폭력 행위와 유희로 얼룩진 미래의 전망이 드러나며, 끊임없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교회에 구세주 강생 이천년 대회년을 거행하도록 권고하면서 이 거행이 ‘장기’ 적으로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하였고, 지금 그 확신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에페 1,10; 골로 1,15-20 참조). 교황 바오로 6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목적이시고 역사와 문명이 열망하는 초점이시며 인류의 중심이시고, 모든 마음의 기쁨이시며 그 갈망의 충족이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현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45항. 선포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잇을 수 있겠습니까? 공의회 가르침은 우리가 교회의 본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해주었고, 믿는 이들에게는 신앙의 신비뿐만 아니라 현세 사물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라봄으로써 그에 대한 더욱 명확한 시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강생하신 말씀 안에 하느님의 신비와 인간의 신비가 함께 계시되었고, 같은 곳, 22항 참조. 그분 안에서 인류는 구원과 충만함을 얻습니다.

7. 교황직을 시작하며 저는 회칙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를 통하여 이 주제를 발전시켰고, 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를 자주 다루었습니다. 대회년은 신자들에게 이 기본 진리를 다시한번 숙고하도록 권유하기에 알맞은 시기였습니다. 이 큰 행사를 위한 준비는 전적으로 삼위 일체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명백히 성체성사를 위한 자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성체성사의 해를 시작하며, 저는 제가 「제삼천년기」에서 한 말을 다시 들려 드립니다. “2000년은 열렬한 성찬의 해가 될 것입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20세기 전에 마리아의 태중에서 육신을 취하셨던 구세주께서는 당신 자신을 신적 생명의 원천으로서 인류에게 계속하여 내어 주십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제삼천년기」(Tertio Millennio Adveniente), 55항: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 87(1965), 38. 또한 그 해 로마에서 열린 세계 성체대회도 대회년의 이러한 측면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회년을 준비하며 펴낸 교황 교서 「주님의 날」(Dies Domini)에서는 신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며 교회의 특별한 날인 주일에 대하여 목상해 보도록 권유하였다는 사실도 되새겨 볼만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모든 이가 성체성사 거행이 주일의 핵심임을 재발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주님의 날」(Dies Domini), 32-44항: AAS 90(1998), 732-734 참조.

## <성서묵상>

###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예수

- 요한 10, 22-39 -

예수님을 불신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 성전 봉헌절에 예수님께 해명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은 ‘하느님과 하나’이며 ‘하느님의 아들’ 이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느님과 당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신성모독’ 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느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랍비들의 논쟁 방식에 따라 성서를 인용하여( “ 너희 율법에 ‘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 자신을 변호하십니다. 성서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 칭하는데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이며 하느님의 파견을 받아 세상에 온 당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사람이 메시아(그리스도)다!” 바로 이 ‘생각’ 이 자신의 메시아상을 만듭니다. 그 메시아상이 머리를 점령할 때 그는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상이 눈앞의 메시아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는 것에서 자유로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자세하고 친절하신 설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설명이 분명할수록 그들의 고집은 더욱 굳어질 따름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은 아닌지요. 오히려 내가 믿고 바라고 있는 ‘생각’ 속에 그리스도로 인해 신앙의 위기를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

나눔>

1.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내 삶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과 굶주린 사람들,  
나환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  
이들 모두를 대신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보여주신 사랑과 너른 마음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푸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여러분이 쓰다 남은 것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를 때까지 베푸십시오.  
예수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때,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베푸는 일에는 심오한 기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성체 성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빵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 마더 데레사의 말씀 '즐거운 마음' 중에서 )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 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